

시중은행 이번주 금리인하

KEB하나·NH농협 등 예금·대출 금리 줄줄이 내릴 듯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하면서 국내 시중은행들이 이번 초부터 예금·대출 금리를 줄줄이 내릴 전망이다.

은행들은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양도상대금증서(CD) 금리와 코픽스(COP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이 떨어지면 이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코픽스는 매달 15일 조정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대로 안착하면서 조금 더 내려갈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초 3%대를 기록하며 오름세를 이어가다가, 지난 4월 2%대로 하락했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각각 2.95%, 2.99%의 금리로 주택담보대출

을 제공해,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2%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기록했다.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2.78%, 2.85%로 집계됐고 주요 은행중 신한은행(3.01%)과 NH농협은행(3.11%)은 3%선을 유지했다.

은행들은 예·적금 상품 수신금리의 인하 시기와 폭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고 있다.

농협은행은 다음주 초에 예·적금 상품의 수신금리를 하향 조정한다. 기준금리와 연동되는 국민족실세예금, 정기적금 상품 등이 대상이다.

하나은행도 금리인하 시기를 다음주 초로 결정했다.

아직 정확한 인하시기를 밝히지 않

은 신한·KB국민 등 다른 주요 은행들도 이달 중에는 금리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은행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시중은행의 인하폭은 한은의 인하폭인 0.25%포인트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금리가 이미 한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선반영했기 때문이다.

현재 주요 은행 예금상품의 기본금리는 연 1.3% 선이다. 10월 기준으로 하나은행의 행복부캐더정기예금과 신한은행의 S드림 정기예금은 1.30%, 국민은행의 국민수퍼정기예금은 1.31%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금상품의 금리는 0% 후반대에서 1% 초반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진수 기자



동해 오징어 품어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항에 입항한 성동호(주문진선적·근해체류기·29t)의 선원들이 밤사이 동해 바다에서 잡아 올린 오징어를 활어채에 옮겨 실기 위해 플라스틱 대야에 오징어를 옮기고 있다.

5월 아파트 청약자 46만6360명

5월 신규아파트 분양시장은 전달보다 공급물량은 증가했지만 총 청약자수는 감소했다.

수도권에서는 동탄2신도시, 광명역세권, 과천시 등 유망 입지 물량에 청약통장이 몰렸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인기지역으로의 명맥을 이어갔지만 충북, 경남, 경북 등 그 외 지방 분양시장은 청약 미달 단지가 속출했다.

최근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분양시장(4만260가구)에 뛰어든 총 청약자수는 46만6360명, 1순위 청약자수는 44만8879명이었다.

이는 전월 청약자수 53만1601명, 1순위 청약자수 52만4435명 보다 각 12.28%, 14.78% 감소한 수치다.

반면 지난해 청약제도 완화로 1순위 청약자수가 늘면서 전년 동기 청약자수는 29만472명, 1순위 청약자수 27만4537명 대비 각각 56.77%, 62.77% 늘어났다.

한편 5월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은 12.7대 1,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12.17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 전체 평균 8.06대 1, 1순위 평균 7.44대 1 대비 높은 수준이다. 반면 전월 전체 평균 23.27대 1, 1순위 평균 22.95대 1 보다는 낮아졌다.

전체 평균 청약경쟁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135.09대 1 ▲제주 100.36대 1 ▲광주 24대 1 ▲서울 7.31대 1 ▲경기 6.92대 1 ▲충북4.28대 1 ▲전북2.88대 1 ▲인천2.23대 1 ▲강원1.85대 1 ▲울산 1.77대 1 ▲충남3.5대 1 ▲경북0.69대 1 ▲경남0.28대 1순이었다.

/인진수기자

경제 회복 부진한데 국세수입은 크게 늘어

세수진도율 43.5%로 7.0%p 개선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세는 지지부진한데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국세 수입이 크게 늘었다.

10월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 실적은 9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1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걸어야 할 세금 대비 이미 걷은 세금의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43.5%로 지난해(36.5%)보다 7.0%포인트나 개선됐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5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5조5000억원, 소득세 3조9000억원씩 세수가 늘었다.

담뱃세를 포함한 기타세수는 2조원, 교통세는 7000억원 관세는 2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12월말 결산범인의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 감면 정비 효과 등으로 법인세가 증가했다"며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소비실적이 개선되면서 증가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민간소비를 보면 지난해 4분기 3.3%, 올 1분기 2.1%씩 각각 늘었다.

4월까지 중앙정부 총수입은 150조 8000억원 총지출은 146조6000억원의

로 통합재정수지는 4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당장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13조5000억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9조2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세수 실적이 개선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22.1%)보다 12.9%포인트 개선됐다.

4월 말 기준 국가채무 규모는 582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연말(566조5000억원) 대비 26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는 매달 발행되는데 비해 상환은 3·6·9·12월만 이뤄져 상황이 없는 달은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는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인진수 기자

전북은행, 우수고객초청 결식아동돕기 골프대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10일 최우량고객을 초청해 결식아동돕기 프로암 골프대회를 덕유산 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한 무주유성컨트리클럽에서 개최했다.

이번 골프대회의 수익은 결식아동을 돕는데 전액 사용돼 지역나눔행사로서의 뜻깊은 시간이 됐다.

대회 참가자들은 '경쟁과 실력의 차이'를 떠나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 보교환을 통해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됐다면서 "더불어 뜻깊은 지역나눔행사에 참가해 보람차다"고 말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고객분들의 성원과 격려를 바탕으로 사내원 금융그룹의 중추은행으로 성장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즐거운 직장 생활은 행으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고객과 함께할 수 있는 뜻 깊은 나눔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매년 '프로암 골프대회'와 '신년음악회'에 우수고객을 초청하고 모금행사를 병행함으로써 지역사회공헌활동 대표행사로 앞장 서고 있다.

/정영수기자

남원농협발전상생협, 농번기 춘향골농협과 농촌 일손돕기

남원시농협발전상생협의회(위원장 조내수)와 춘향골농협(조합장 임승규) 임직원들은 최근 농번기를 맞아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원시 금지면의 포도재배 농가를 찾아 봉직취우기 등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농협 남원시지부, 춘향골농협 및 관내 농·축협 상생위원 등 임직원 40여 명이 함께 했으며, 농협임직원들은 포도 봉직 취우기 작업이 한창인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남원=유영철 기자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접수

전북지방중기청 6월 30일까지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원탁)은 이달 30일까지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산업가능요원 소요요원 배정 신청을 받는다.

분야는 공업, 광업, 에너지 등 3개 분야다.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상사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제조·매출 실적이 있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특성화·마이스터고와 산학협약한 벤처기업은 상사근로자 5인 이상 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특히 2016년부터는 중견기업도 산업가능요원 신청이 가능해졌다. 단, 중견기업은 보충역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산업가능요원 신청을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nhakinsrnta.go.kr)에 신청 후, 증빙서류를 전북중소기업청에 제출(방문 또는 우편송부)하면 된다.

산업가능요원은 현역 3개월, 보충역 26개월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생산인력으로 군복무를 대체하게 된다.

신청업체는 오는 10일 병무청의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11월 선정하고 12월까지 업체별 인원 배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신봉영기자

신용보증기금, 수출 중소기업 지원 확대

한국무역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10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 이하 신보)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 이하 협회)와 신보는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9일 경북 구미 호텔 금오산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정보 교류, 공동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수출 희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각 기관의 금융·비금융 제도를 연계해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수출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신보의 수출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과 무역기금 협약보증 등을 활용해 수출자금 조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협회의 전 직원을 위한 업무협약 및 해외진출 및 상담회 참여 등을 통해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게 된다.

서근우 신보 이사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교역량 감소 등으로 수출 환경이 녹록치 않은 시기에 양 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중소기업이 수출 회복의 주역으로 거듭나는 데에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영수 기자

'더페이스샵' 네일제품 6종 회수

LG생활건강의 '더페이스샵'이 네일제품 6종을 회수한다.

더페이스샵은 지난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트렌드네일즈 유난히 고온 실버 제품에서 유해물질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동일 제조사에서 생산된 네일 6품목을 전량 자진회수, 폐기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역시 해당 제품들이 자사 품질 검사에서 '포탈레이트' 기준치를 초과, 자진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상 제품은 트렌드네일즈 ▲유난히 고온 실버 ▲난장이가 쓰아올린 별 ▲세련된 무드 ▲플라밍고고고 ▲뫼헤어저 ▲마이딕브라운 등 6종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가까운 더페이스샵 매장을 방문해 교환, 환불 요청을 하면 된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 역시 일부 틸트 제품이 미생물 기준치를 초과해 지난달부터 제품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회수 제품은 아리따움 블룸업 오일틴트 2호(S051304, S031414, S030713), 5호(S050907)다. /인진수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